몰래 섞인 다른 신 신앙 색출하기

(신명기 13:1~18)

1.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 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2.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 너는 그 선지자나 꿈 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4.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5. 그런 선지자나 꿈 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몰래 섞인 다른 신 신앙 색출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몰래 섞인 다른 신 신앙 색출하기'

앞장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중앙 성소를 두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방민족들의 종교의 신들을 믿지 않게 하시려고 조처를 취하신 것'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종교의 신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선민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다른 신 섬기기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공산당은 공산당의 사상을 먼저 접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 사상을 퍼뜨리므로 공산주의가 되는 곳이 있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자생하는 공산주의가 있는 것처럼, 선민 안에서 자생하는 다른 신 섬기기가 있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몰래 섞여있는 다른 신 신앙'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이유는 잘못되었음을 가리는 요소들이 다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잘못됨이 가려지는 요소들을 다 떼고 나타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할 것인데 몰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 대한 경고이기보다는 우리 선민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3절에 "너희가 이적과 기사를 마음으로 좋아해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실 것인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적과 기사를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거짓된 선지자나 영적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거들먹거리고 있을 것인데 가려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적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에 의해서 가려지기 때문이고, 세상에 기적을 행하는 거짓선지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적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기적을 더 좋아하는 거짓된 선민들을 가려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거짓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와 선지자'라는 것은 영적세계를 관계하는 자들로 영적세계를 관계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6절에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죽이라"고 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는 동복형제, 내 자녀, 내 품의 아내, 생명을 같이 나누는 친구를 말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의 대표입니다. 내가 품에 품은 아내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먼저 손을 대고 뭇 백성이 손을 대서 죽이라는 것인데 끔찍하지 않습니까? 동복형제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내가 먼저 손을 대고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녀까지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몰래 한다."고 하는데 친밀감에 가려져서 너무 친하기 때문에 내 살과 같이 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이 가려져서 보이질 않기 때문에 '몰래 섞여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에 "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 영적인 불량배가 하나 등장을 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를 때 성읍 전체를 전멸시키라"고 하십니다. '한 성읍에 사는 선민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내 이웃이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이 크게 지어져 있으면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옳은 줄 알아서 가려지는데 부화뇌동하는 것입니다. 이단치고 사람이 많지 않고 이단치고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갖지 않은 이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돼서 그들의 잘못이 가려져서 몰래 섞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정교회 같은 곳은 제 양심과 신앙으로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사상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온 세계의 대표적인 교회로 칭송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

습니다. 지금은 예배당이 팔렸다고 하지요? 하여간 이렇게 부화뇌동하므로 숫자를 보거나 눈에 보이는 외관을 보거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잘못이 가려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다른 신 섬김을 찾아내고 색출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다른 신 섬기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색출해 낼 것이냐? 예를 들어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온 집안이 불상 앞에서 절을 하므로 따라서 했는데 문제가 다 풀려서 그것도 가끔 해보는 게 괜찮겠어.'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자고 하는 것은 색출해내는 것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실제로 남북왕국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 뜰에 이방종교의 제단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민 안에서 자생하는 다른 신 섬기기는 아주 보기 드문 경우에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인이 불상 앞에 절을 한다든지 회교의 알라 신이나 힌두교의 신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다원주의 사상가들과는 대화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서 끊어내시고 도려내 버리면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에 담는 사람은 상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통교단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꼬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른 이방종교와의 관계를 많이 다루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주로 선민 자체 내에서의 잘못된 신앙을 문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바르면 다른 이방종교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선민인 유대인들 안에서 다른 신의 한 예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선민 안에서 하나님 섬김 대신에 자생적으로 섬기게 되는 다른 신은 재물입니다. 마6: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도의 강도와 그 정도의 열심과 그 정도의 의미부여를 가지고 재물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동등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섬김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과 재물이 동등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신이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19:24절에는 부자청년과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십니다. 이 부자청년은 유대인으로 선민인데 구원받았음의 확증을 지워버리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형태의 다른 신

섬기는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재물을 섬길 때 이 사람이 재물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선민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하나님의 정체성의 문제를 알아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다른 신을 섬기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선민들이 금송아지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방민족들로부터 자신들을 종교측면, 생활측면, 문화측면에서 엄격히 구분했던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신 섬김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돈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바리새인 자신들도 몰랐고 일반 평민 유대인들도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통교단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났던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서 본문대로라면 이적과 기사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적과 기사까지도 행하고 있으면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무조건 옳은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을 묶습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우리가 입으로 불러야 되는 하나님을 묶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분되는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계시느냐? 선민들을 종 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으로 정체성을 가지시는데, 본문에도 5절과 10절에서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신명기에서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5장, 6장, 7장에서 두 번씩 나오고 8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과 똑같지는 않아도 출애굽 사건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으로 하나님과 묶는 표현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체성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선민을 노예상태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과 다른 것은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해방시키신 노예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어떤 의도나 어떤 말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자요, 하나님을 등진 자요, 선민의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노예상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노예상태가 곧 죄입니다. 십계명 중에 5~10계명까지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범죄들은 죄가 아니고 죄의 열매입니다. 노예상태가 죄인데 어떤 노예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흡입력이 작용합니다. 이 흡입력에 의해서 어떤 대상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빈구석을 채워서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의 가치들로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하면 세상가치의 노예가 됩니다. 출애굽이 '종 되었던 집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민을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세상 가치들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가치의 노예로 태어나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 가치로 되돌아가자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키신 선민들을 그 해방되어진 종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사장님이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많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기쁘다고 믿고 사업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데 이게 죕니다. 그리고 이때에 사업이 바로 다른 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재물과 같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재물을 같은 선상에 놓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관계할 때의 마음으로 재물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재물이 신이 된다고 하면 사장님인 장로님에게는, 사장님인 집사님에게는 사업체가 다른 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쳐 죽여야 되는 꿈꾸는 자와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사업에 노예가 되어서 섬기고 있는데, 사업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길을 제시하는 자들을 쳐 죽이라는 것인데 이단보다 더 무서운 자들입니다. 또 어머니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먼저 많이 사랑하는 경우 이 자체가 죕니다. 자녀를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먼저 크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게 죕니다. 그리고 이때 자녀가 바로 다른 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심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 잘 기르는 법을 설교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는데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잘되고, 자녀 잘됨의 노예가 된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녀가 잘 되는 길을 제시하는 그런 선지자가 기적을 행했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불치병을 낫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죽이라는 얘깁니다.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목회를 더 많이 사랑하는 상태가 죕니다. 목회현장에서 다산과 풍요가 바로 다른 신이 됩니다. 목회를 크게 하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작게 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목회를 크게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면 그 목사님이 기적을 행하더라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하나님보다 더 먼저 많이 사랑하는 것이 죕니다. 피아니스트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제시하면 그가 기적을 행하더라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폴 틸리히(Paul Johannes Tillich)라는 신학자는 "종교는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말한 것은 아주 제한적이지만 옳은 면이 있어요. 자녀가 궁극적 관심이고 종교

입니다. 피아노 치는 것이 궁극적 관심이고 종교입니다. 사업하는 것이 궁극적 관심이고 종교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기적까지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어머니들이 기적 행함을 통해서 꿈꾸는 자와 선지자 목사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짜 선민을 가려내시는 것인데 참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까?

'선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해방시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14: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라고 하십니다. '평안'이 뭐예요? 내 마음이 만족한 상태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충만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한 연합이 자녀와 이루어지고 사업과 이루어지고 피아노와 이루어지고 돈과 이루어지고 목회부흥과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께 '만약에 사모님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자다 말고 막 낄낄대면서 아니 오늘 아침 세미나하신 목사님이 너무 멋지지 않아? 너무 훌륭하지 않아? 그 다음날도 환하게 웃으면서 아니 난 그 목사님만 생각하면 너무 즐거워.'라고 한다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 봤더니 '쫓아내야지요.'라고 하십니다. 맞아요. 자기가 같이 있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밝게 웃어 본적이 없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환하게 웃습니다. 이미 내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돈으로 환하게 웃고, 하나님 말고 자녀로 환하게 웃으면 이미 선민이 아닙니다.
신의 정의는 나를 웃게 하는 자요, 나를 만족하게 하는 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는 이름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나를 웃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치들이 다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것이고 '다른 신들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얘깁니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는 요16: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신으로 섬길 수 있고,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주님이 바로 해방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도 기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비어있는데 하나님을 향할 수 없게 유전 죄가 유전형질로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가치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박해라든지 순교로 생각하는데 외형적으로 들어나는 박해나 순교만 환난이 아니라 세상 가치를 떼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욥에게서 떨어져 나간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

다. 다 떨어져 나간 뒤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처럼 ‘환난’은 바로 ‘내 마음이 세상의 가치에 끌려서 살던 삶에서 돌아선다.’는 것이고 갖고 싶은데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정통교단에 섞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에 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과 기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지 아닌지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구름 위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도록 인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도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설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구름 위의 하나님께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일한 길로 제시하면서 십자가로부터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의 동선을 잊지 않고 빠지지 않게 설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전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런 모세로부터 시작되어 내려오는 모든 사상을 밑에 깔고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위의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세상 가치에 대해서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가치를 이룰 수 있다고 설교하는 자들은 기적을 행해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통교단의 총회장이라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 내 마음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총회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정통교단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대형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안정된 무슨 확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일 년이 가도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의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우리 마음을 끌어들여서 구름 위 하늘로 가서 만족과 행복을 끝낸다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서 죽여 버리시고 끝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마음에서 죽이라’는 이유는 더 이상 뭘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완전히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도 배운 게 그것밖에는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요. 사실은 신학교를 다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얘기하지만 부활 따로 하고 승천 따로 얘기할 뿐,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로 날마다 생활화해야 한다는 소리를 저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도 들어 본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기도해야지요. 기준이 뭐라고요?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과 행복의 문제를 끝내자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이고 참 목사이고 참 선민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도달하느냐? 날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자식을 대할 때도 내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이어지는 승천까지의 동선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이적과 기사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냐? 아니요. 내가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내려 오셔서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실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지금도 동해바다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괜히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걸 내가 왜 좋아해야 합니까? 정신 나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좋아해야지 왜 이적과 기사를 좋아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른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이 몰래 섞여 있습니다. 내가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밀감에 섞여 있고, 기적과 능력에 가려져 있고 또 부화뇌동의 분위기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승천까지의 동선 만이 길입니다. 이것 하나로 얼마든지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몰래 섞인 다른 신 섬기기가 나 자신에게는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노예상태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주님의 동선을 따라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드리는 참 선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